

구세주가 사람을 하나님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온전한 말씀만 해요? 부족한 말씀만 해요? 완전한 말만 하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치 못한 것을 폐하리라”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밀실에서 이긴자가 됐다. 또 이겼다. 그 다음에는 완성자가 됐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듣고 나왔죠? 그렇게 나왔지만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런 말 했어요? 그런 말 안했죠?

그런데 청랑리에 우리 민혜경 권사님의 꿈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불러라 하고서 꿈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고로 그런고로 그 민혜경 권사가 이 사람한테 찾아와서 “꿈에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민혜경 권사한테 하는 말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지금 새로 모여드는 사람들 다 제단에 안 나오니까. 우상 숭배라고 인간이 주님이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고로 우리제단 안 나오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민혜경 권사님 여기 오셨나? 민혜경 권사 오셨어요? 청랑리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민혜경 권사가 이 역곡 식구들한테 전부 다 얘기를 해서 모두 주님이라고 불렀죠? 사실은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쓰여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주라고 부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쓰여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라고 부르는 거지 다른 사람을 주라고 부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데 예수더러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그건 성경적인 말씀대로 하는 거야? 성경적인 말씀대로 안하는 거야?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 몸만 입었지 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내려 왔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격암유록에는 “노고산과 소래산 사이 밀실에서 삼신이 역할 한다.”는 말이 쓰여 있는데, 삼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노고산과 소래산 사이에서 연단을 받았던 것은 밀실에서 연단 받고 나와야 진짜지, 밀실에서 연단 받지 않고 나온 사람은 가짜인 고로 그런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어찌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속속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구원이지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말씀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자식

또한 이 사람이 “사람 자체가 신이다,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자식이 하나님이 지 하나님 자식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식(시편 82편 6절)이라고 그랬어요, 곧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 것입니다. 구세주가 사람을 하나님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 것입니다. 왜 식은 죽 먹기란 말이 나온 줄 아세요? 식은 죽은 뜨겁지 않으니가 먹기가 쉽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죽은 호호 불면서 먹으니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식은 죽 먹기라는 건 쉽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이 틀림없는 신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을 하죠? 인간의 마음이 영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마음이 영이라면 바로 영이 신이요 신이 마음 인고로 마음이 사람의 주인인고로 마음이 승리제단에 가보고 싶으니가 왔지 가기 싫은데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인은 내 마음인 것입니다. 주인이 신이니까 사람이 신이라고 해야 말이 맞는 거죠? 이 세상 학문은 이런 것도 모르면서 학문이라고 하는데, 대학 아



구세주 조희성님

니라 대학원까지 공부를 해봐야 뭐 아는 게 있어요? 박사들이 뭐 아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것뿐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첨단 과학자가 모르는 걸 논해요, 안 논해요? 아니까 논할까요? 모르는데 꾸며서 말 하는 걸까요? 알기 때문에 조리 있게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치가 맞는 말을 해야 누구든지 듣는 것이지 이치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면 골치가 아파서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제 세 시간씩 설교할 때에 짹짹 안하고 앉아서 들었어요, 궁둥이가 쭈서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어요? 궁둥이가 아프지만 아픈 걸 몰랐던 거죠? 너무나 무기가 막히게 맞는 새로운 말씀인 고로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말할 수 없이 재미있는 고로 궁둥이가 아파도 아픈 줄도 몰랐던 거죠? 재미있으니가 병도 낫는 거죠?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해야

사람이 웃으면 생명의 물질이 방출돼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고로 병이 낫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몰라요? 무식해서 모르는 거죠? 텔레파시라는 세상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마음의 물질이 사람 몸에서 방출되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사람이 웃으면 뒤에 서 있는 사람도 따라서 웃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있는 사람의 몸에서 웃는 물질이 나와서 뒷사람한테 그 웃는 물질이 전달되는 고로 뒤에 있는 사람이 괜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생각의 물질이 방출되어 나온다는 것을 어디서 들어 봤어요? 듣고 보니까 딱 맞죠?

생각의 물질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는 고로 못된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부모님이 아이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못된 친구를 사귀면 자기 자식도 못된 아이가 돼 버린다는 것을 아는 고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하는 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일도 잘되고 병도 안 걸리지 못된 놈을 만나거나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을 사귀면 그 병이 오염되는 고로 친구를 잘 선택하라는 찬송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보냐 하면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예배 보는 곳입니다. 그런고로 옆에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

고 있으면 자기도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제단에 오기만 하면 은혜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보라는 것입니다. 매일 나와서 예배 보면 결코 늙을 수도 없고 병이 걸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단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뭐든지 하는 일이 잘 되지만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 확신을 가지는 자는 그대로 되어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들이 은금보화를 신고 들어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매일 출석한 사람들한테만 그 은금보화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미국 나라 돈도 오고 일본 나라 돈도 오고 저 중국 나라 돈도 오고 전 세계의 돈이 다 오면 그 돈을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단식구들이 때부자가 되겠죠? 그런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는데, 이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 오면 이 사람은 전도해 온 사람이 그렇게 예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은 예배하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왔는지 안 왔는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은 이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러 왔기 때문에 전도해 오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 보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사람들은 단상에 한 시간만 서 있어도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두 시간, 세 시간을 설교해도 다리 아픈 줄을 모르는 것은 마음이 기쁘고 좋은 고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세 시간 하고 사무실에서 두 시간 동안 떠돌어도 조금도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없으면서 어제 왔던 장로 내외가 아주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옥중에서 나와가지고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지방 제단에 다니는 걸 봤죠? 이것은 인간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인간의 나이로 칠십한 살인데, 옛날에는 칠십은 고사하고 육

십 하나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산체로 땅에 갇다 묻는 고려장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칠십 하나면 고려장 지낸 지 십년이 넘는 나이인데, 이 사람 움직이는 것을 보만 젊은이가 움직이는 것 같죠?

어저께 오전에 비행기 타고 부산까지 갔다가 오후에 다시 역곡에 와서 세 시간 동안 예배를 봤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고공에 올라가면 안 아픈 몸도 아프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미국을 갔다 와도 까딱없는 것입니다. 탄 사람 같으면 시간차 때문에 1주일이고 2주일이고 힘들어 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 몸이 아닌 고로 까딱없는 거죠? 이 사람은 100살, 200살 넘어도 점점 젊어지지 늙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닮아서 다 젊어져야 되겠죠? 이 사람은 젊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늙어지면 되겠어요? 젊어져야 되겠죠? 꽃처럼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까요, 나쁜 일만 있을까요? 좋은 일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제단 나오고, 열심히 전도도 해서 상을 받아야 되겠죠? 상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 장로 부인이 내 사무실에서 2시간 동안 얼마나 기뻐하면서 호들갑을 떠는지, 이 승리제단 온 것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도 혼자 좋아서 떠드니까 남편이 “여보, 말씀 좀 듣게 가만히 있어.” 하니까 잠깐 가만히 있다가 내가 말하는 걸 중간에 끊고 또 좋다고 자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여자를 볼 때에 마치 세 살 난 애기가 재롱 떠는 것같이 보였는데, 이 역사를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처음 봤던 것입니다.

어제 이 사람의 설교 말씀을 듣고 안 깨질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제 세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누구도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성 교회 목사들이 와서 들었다고 해도 다 깨지게 되어 있는 고로 목사 다 때려 집어 치우고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1년 7월 2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혜옥 기자

한국인과 유대인은

생활문화 뿐 아니라 골격, 골상까지 같아

지난 98년 4월, KBS 일요스페셜 팀이 제작한 <황금나라의 비밀, 신라 황금대총>은 한민족의 기원에 대한 또다른 가설을 제시했다. 1973년 7월 6일, 신라의 고도(古都)인 경주시내 한가운데 있는 대릉원에서 출토된 유물의 기원을 찾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 다큐멘터리는 신라 금관 장식의 나무와 사슴 모티브를 기원전 1세기 유라시아 초원을 지배했던 스키타이 황금문화권의 사면에서 찾았다고 밝혔다.

또 알타이 공화국의 우코크 평원에서 발견된 무덤이 신라 초기 갑자기 출현한 무덤양식인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과 동일하며, 출토된 유물의 대다수도 당시 지중해와 흑해 연안에서 사용하던 것과 동일함을 실험과 비교·제시했다.

쓰던 물건들이 똑같다는 것은 생활양식도 그러하다는 것, 가장 보수적인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무덤 양식마저 똑같다는 것은 같은 민족임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 북부나 중부 일부에 사는 일부 종족들은 아직도 돌담으로 지은 집에 살며,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로 돌제단을 쌓는다.

예전엔 우리나라에서도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단(壇)을 쌓았으며(강화도 마니산의 참성단)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방식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장례 방식은 우리와 더욱 흡사하다. 기령, 상주들이 배움을 입고 배로 건을 만들어 쓴 뒤, 향을 피우며 대나무를 쥘고 곡을 한다든가(창37:34)·(역상 21:16), 곡을 할 때는 ‘아이고 아이고’라고 한다는 것 등이 그러하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도 이런 식으로 장례를 지내지는 않는다. 인류사를 통틀어 사람이 죽었을 때, 배운 곡을 하는 민족은 오직 한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뿐이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농경법과 농구(보습, 쟁기, 도리개 등)로 농사지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부삽, 불집게, 숟가락, 돛그릇을 사용(열하25:14)

한민족의 조상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

쓰던 물건들이 똑같다는 것은 생활 양식도 그러하다는 것
가장 보수적인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무덤 양식마저
똑같다는 것은 같은 민족임을 말하는 것이다



돌제단 앞에서 제사 지내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 매운 음식과 부추 그리고 아주 값고 맑은 물에만 사는 향어(일명 이스라엘 잉어) 등을 즐겨 먹었다. 이렇듯 한국과 이스라엘은 수천년 동안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공유해 오고 있었으니 유물이 같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문화뿐 아니라 한국인과 유대인은 골상학적인 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유사하다. 1950년 1월경 모 일간지에 미군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는 유대인 인류학 박사의 기사가 실렸다. ‘나는 각 나라 민족별로 골상의 형태를 오랫동안 연구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그의 얼굴이나 유골을 보면 쉽게 어떤 계통의 민족인지 알 수 있다. 나는 2년반 정도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무덤의 유골을 보아 왔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한국인들이 한결같이 나와 같은 유대민족 골격에 골상을 하고 있었다.’

백과사전에서도 한국인의 골격 구조와 골상이 ‘고대 유대인’의 골상과 동일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골상뿐 아니라 외모 상으로 보아도 원래 유대인은 한국인들처럼 황인종(창9:25)이며 머리카락이 검고 키가 작았다(민13:32-33).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城)을 쳐들어 가려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돌아와 보고하기를, ‘그곳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더라’라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흔히, 한국인의 두뇌가 우수함을 일컬

어 ‘제 2의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그런데 70년대 미국 하버드대 인류학자들은 오히려 한국인이 가장 머리가 뛰어난 민족이며 그 다음이 유대인이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하버드대의 역대 수석 졸업자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라는 사실도 이를 증명한다.

2002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능 연구가인 영국의 얼스터 대리처드 린 교수와 핀란드의 헬싱키대 타투 반하넨 교수가 세계 185개국 국민의 평균 지능지수(IQ)를 조사한 바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남한이 평균 아이큐 106으로 세계 1위, 북한이 106로 일본과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사실 홍콩이 107로 1위라고 하지만 홍콩은 나라라기 보다는 도시이므로 논외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도시의 평균은 홍콩보다 높으므로 사실상 1위는 한국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94로 45위에 그쳤으니 이제 한국인을 제 2의 유대인으로 부르기로 ‘유대인’을 제 2의 한국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